9·8·7-3층 연금전략

김 현기 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⑲

▶ 9·8·7로 준비하는 나의 노후설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9% 월 기준소득 대비 근로자 : 4.5% 사용자 : 4.5%	8.33%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용자 부담	700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개인 추가 입금

우리는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3층 연금 자산관리와 연금수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연금상품을 나이에 따라 배치해보면 준비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될지 표현해 보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리 내다보는 '연금으로 노후설계 하기'입니다.

Q:3층연금자산관리와 연금수령 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자신의 월 급여에서 몇 % 또는 얼마를 노후준비로 적립하여야 적당할까요?.

A:3층 연금자산관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60세까지 가입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 근로자 4.5%)를 적립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이 449만원 초과라 하더라도 449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불입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2017년 7월~2018년 6월)입니다.

퇴직연금은DC(확정기여형제도) 기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8.33%)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최고 한도 7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연금저축의 경우 700만원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액수만큼 입금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3층 연금자산관리를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3%, 세액공제연금저축 700만원의 앞머리 숫자를 따서 '9· 8· 7 연금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두텁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9·8·7 연금 전략에서 내가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절반인 4.5%와 퇴직연금 8.33%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9.8.7 연금전략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는 노후 준비자산입니다.

따라서 모든 3층 연금자산관리 세미나의 최종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9· 8· 7 연금 전략에 월 급여의 몇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기우가 아니길

기자 수첩

김 승 호
〈산업부〉

요즘 중소벤처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사람'이다.

'요직에 앉게 된 사람'이라고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수장에 A씨가 온다는 소문은 지난해 말부터 있었다. 심지어 A씨의 고향 주변에서도 일찍이 소문이 퍼졌다. 장관에까지 하마평이 올랐던 사람이니 산하기관장쯤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과, 그 자리로 성에 차겠느냐는 평가가 엇갈렸다.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나자 소문은 사실이 됐다. A씨는 기관장이 되자마자 39년 된 기관명칭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최근엔 해당 기관의 임원 주변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차관급 자리엔 연초부터 기업인 B씨의 내정설이 나돌았다.

B씨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과거에도 같은 자리에 도전한 바 있다. B씨에 대해 업계에선 기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해당 자리에 적임자라는 평가와, 현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규제를 해결해야하는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맞섰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B씨의 내정 소식에 '멘붕'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B씨 역시 소문대로 무난하게(?) 자리에 앉았다.

어느날 중소기업 단체 중 한 곳엔 서울의 한 구청장 출신인 C씨가 '2인자'로 왔다는 소식도 들렸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이 단체는 직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지만 2인자인 상근부회장의 적지 않은 월급을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100% 대주고 있다. 한 정치인은 C씨를 자신이 밀었다며 언론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맏형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단체엔 정치인 출신 D씨가 상근부회장에 입질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 때 돌았다. 하지만 노조 등의 반대로 D씨의 입성은 결국 무산됐다. 이 단체는 또 감사 자리에 정치적 색깔이 짙은 E씨를 금명간 임명할 계획이다. 타의에 의해서다.

곳곳에 앉은 이들 요직 자리를 두고 말이 많은 게 요즘 중소기업계 주변이다. 물론 이들을 모두 '낙하산'이라고 싸잡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자리에 앉는 과정을 전후해 업계 안팎의 우려 등이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젠 이들 인물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bada@metroseoul.co.kr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과장급〉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장혁조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 김용태

◆**국토교통부** ◇전보 〈부장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 이용규 △하천계획과장 강성습

◆**예금보험공사** ◇임원 △이사 손형수

◆**한국철도공사** 〈처장급〉 △미래기획처장 양태훈 △언론홍보처장 양광열 △문화홍보처장 박진홍 △안전관리처장 유종복 △환경경영처장 유경종 △관제실장 최병규 △종합감사처장 이두형 △경영감사처장 전장호 △경영평가처장 김경재 △총무처장 김영진 △인사기획처장 한인숙 △노사협력처장 김명환 △복지후생처장 정영배 △재무처장 신동진 △자금처장 정세훈 △계약협력처장 노춘호 △스마트기획처장 박현정 △IT신기술개발처장 정경우 △해외사업처장 강석철 △관광사업처장 윤재훈 △수송운영처장 조민영 △열차서비스처장 안종기 △물류계획처장 박두호 △물류마케팅처장 신상철 △물류개발처장 서병섭 △광역마케팅처장 도현철 △광역운영처장 백승진 △사업기획처장 원형민 △역세권개발처장 박진성 △차량계획처장 김광수 △고속차량처장 백종길 △전동차량처장 정진태 △시설계획처장 이방우 △전기계획처장 손명철 △통신처장 유서혁 △신호제어처장 안태수 〈부속기관장〉 △철도교통관제센터장 이종후 △IT운영센터장 박현규 △중부권물류사업단장 김태형 △충청권물류사업단장 김환근 △오송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곽영기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이영형 △경주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이성형 △정읍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김광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처장 한영철 △서비스아카데미센터장 박영자 △서울분원장 김진국 △부산분원장 도태득 △영주분원장 김승태 〈연구원〉 △연구계획처장 이민성 △스마트경영연구처장 인태명 △융합기술연구처장 성순욱 △엔지니어링센터장 정재형 〈중부권물류사업단〉 △제천조차장역장 한승일 〈영남권물류사업단〉 △부산신항역장 강병인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장 남시호 △고속차량운영센터장 강기석 △고속차량기계정비센터장 차재동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처장 박찬조 △전기차량정비센터장 허연 △디젤차량정비센터장 박종현 △여객차량정비센터장 김연수 △물류차량정비센터장 권병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처장 정의주 △품질안전처장 김희만 △고속차량운영센터장 류영수 △디젤차량운영센터장 박해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고속차량정비센터장 김재국 〈시설장비사무소〉 △전남장비사업소장 최회창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너지·환경 분야 단장 이상협

부음

▲채명묵씨 별세. 채원배(고양시청 법률자문관)·형숙(전 방송인)·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정숙(전 한국국제협력단)씨 부친상 = 19일 건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2030-7900

▲전근권씨 별세. 허소영(전주시 보도기획팀장)씨 시부상, 전경섭(유진건설 상무)·경찬·경도·소영씨 부친상 = 20일 오전 8시 30분,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63-247-100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제3919호 / 0013호

평창올림픽 'K-Food Plaza' 10만명 관람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는 지난 2월 3일 개관한 평창 'K-Food Plaza'가 총 34일의 일정동안 약 1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평창 'K-Food Plaza'는 우리 한식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체험 공간으로 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에 설치·운영됐다.

동계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1일 평균 약 5000명이 방문했으며 패럴림픽 기간인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에는 1일 평균 1700명이 방문했다. 이 기간 중 외국인도 약 7000명 이상 방문해 동계 올림픽을 통한 한식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K-Food Plaza 쿠킹 클래스에 참석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IBK기업銀, 대한카누연맹에 1억 후원금 IBK기업은행은 20일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카누·카약팀 지원을 위해 대한카누연맹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누와 카약은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서도 6번째로 많은 금메달(16개)이 걸릴 만큼 비중 있는 종목으로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인기 스포츠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용빈 대한카누연맹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생보사회공헌위, 기아대책과 취약계층에 기부금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국내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협회장, 배우 정태우 홍보대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 /생보사회공헌위

도미노피자, 파티카 통해 10년간 피자 4.6만판 기부 세계 최대 피자배달 전문 기업 도미노피자는 파티카(Party Car)를 통해 지난 10년간 전국을 방문해 약 4만 6000여 판의 피자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도미노피자 파티카는 피자 메이킹 시설이 탑재된 차량으로, 2008년부터 전국의 다양한 지역 축제 및 사회 공헌 현장을 찾아가 무료로 피자를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도미노피자

푸르덴셜생명, 고객 유자녀에 1.5억 장학금 푸르덴셜생명은 20일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생명 우리 에이전시에서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총 58명의 고객 유자녀들에게 장학금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24명에게 200만원, 대학생 34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됐다. (왼쪽부터)김충수 라이프플래너, 강주희 세일즈 매니저, 장문희 라이프플래너, 홍혁진 라이프플래너. /푸르덴셜생명